

홍준표 '국민공모주' 정치쟁점 조짐

우리금융·대우조선해양 주식 저소득층 배정 주장

당내선 "굉장히 위험한 발상" ... 포퓰리즘 논란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연일 '국민공모주' 떠우기로 나서면서 정치 쟁점화 조짐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대상을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 중인 우리금융(매각액 6조9568억원)과 대우조선해양(2조2045억원)이다.

과거 '반값 아파트'와 '대부금리 30% 제한'으로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일으킨 홍 대표가 이번에는 우리금융·대우조선해양을 국민공모주 방식으로 민영화하자고 주장하면서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홍 대표의 한 측근 의원은 21일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돼 정상화된 기업의 주식을 저소득층에게 싸

게 배정하자는 것"라며 국민공모주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홍 대표는 전날 최고·중진회의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린 기업의 정부 지분을 특정 대기업에 매각하는 것 보다 다수의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며 "우리은행(과거 외환은행처럼) 사모펀드를 통해 매각하면 특정 펀드만 배 불리는 제2의 론탄사태가 온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민 혈세로 연매출 12조원이 넘는 우량기업이 됐는데 특정 재벌이나 기업에 넘기는 게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에서도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국민공모주 방식을 제안했다.

홍 대표는 국민공모주 방식으로 공

적자금 투입 기업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담은 검토자료를 당 정책위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의 자문단이 작성한 '공적 자금 투입 기업의 국민주 매각 정책 제안' 검토자료에 따르면 국민주 매각에 적합한 기업은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으로, 매각 주식의 50%를 저소득층에, 20%는 우리사주조합에, 나머지 30%는 일반공모 물량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두 기업의 예상 매각가액은 9조1610억원이나 이를 30% 할인 발행하면 회수금액은 6조4130억원, 국민혜택은 2조748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료는 또한 국민공모주 방식의 경제적 효과로 ▲국민 다수 및 저소득층에 소득 재분배 효과 ▲주식 보유 저변 확대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꼽았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하기에는 당내

의 부정적인 의견이 만만치 않다. '시장원칙에 반한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최고위원은 "당이 '주식 100%를 팔라'고 정부에 권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정치권이 매각방식을 얘기하면 정부의 운신 폭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경영권을 갖는 지배주주가 나타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 국민주 방식을 모든 매각 방식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말도 했다.

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도 "국민주 방식으로 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시세보다 싸게 공모해야 하는데 공적자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민영화의 목적 중 하나가 '주인 찾아주기'인데 국민주 방식으로 하면 사실상 정부가 대주주 일파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경선하면 광주 현역의원 절반 탈락"

정동영 최고 기자간담회 ... 총선 전주서 출마할듯



나서서 (현역을) 심판해 줄 것이다. 8명 중 절반은 탈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지금 여당 국회 의원은 정부에 유통(卒)인데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면 국회는 대통령과 대표 등으로부터 아주 독립하게 된다"며 "이처럼 국회의원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권도전으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예상에 대해 "지도자도 안 나오면 당권(도전)을 해야 하냐"고 반문한 뒤 "2012년 한국 정치의 흥행 요소는 민주당에 있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 아니냐"며 "정치는 생활이다. 반전의 드라마, 9월말 역전 승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국민이 감동을 받고 지지를 해준다"고 대권 도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정 최고위원은 수도권 출마설에 대해 "정치는 생활이지만 지난 재보선 때 지역구민과 정치를 이곳에서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현재 문화가 다르다.

한나라당은 수도권이 (여러) 중요하지만 현재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해서 지역구마다 10여명씩 출마에 무게를 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박영선 정책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취재진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경제민주·보편복지' 본격 시동

경제특위 첫 회의...시장경제 불균형 해소 모색

민주당이 핵심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민생진보'의 두 축인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향한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제1차 경제 민주화 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고 시장경제 불균형 해소와 공정한 소득 분배 방안을 모색했다.

특위 위원장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균형 있는 성장과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깨뜨리는 주범은 재벌"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위주로 성

장하면 여러 혜택이 밑으로 흘러서 아랫목에 따뜻한 온기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재벌 폐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법 119조 2항(경제 민주화 조항)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일명 '119특위'로 불리는 경제 민주화 특위는 앞으로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수립하고, 재벌에 의존하는 성장이 아닌 수평적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혁신적 성장 모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오는 22일에는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를 첫 가동, 여야 간 복지 정책 경쟁에서 주도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달 말 무상급식, 보육, 의료 등 무상시리즈와 반값등록금, 주거복지, 일자리 복지 내용으로 하는 '3+3' 보편적 복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규모와 조달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 복지와 관련, 민주당은 2007년까지 비정규직 규모를 50%로 줄이고 임금은 정규직의 8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확정

권재진 8월 8일

한상대 8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는 21일 한상대 겸 활동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8월4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은 나흘 뒤인 8일 열기로 했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청문회 일정을 잠정적으로 이같이 정하고 오는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날 통과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

한나라 광주·전남발전특위 위원장 임명 정용화씨

"호남은 내년 대선서 주요 승부처 지역발전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피로감과 염증이 있다"며 "이탈표를 민노당이나 무소속에 빼기 말고 우리 한나라당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지역발전특위위원장에는 이주영 정책위원장, 서울지역발전특위위원장에 정태근 의원, 경기지역발전특위위원장에 이사철 의원, 인천지역발전특위위원장에 안상수 의원, 전북지역발전특위위원장에 태기표씨 등이 각각 임명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저축銀 국조' 일정 일부 확정

국조 실시계획서 의결...증인채택은 합의 안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21일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의결, 국정조사 일정을 일부 확정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현장 방문과 문서검증, 기관보고 등 전체 일정 및 세부 계획을 담은 실시계획서를 상정,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

는 ▲7월 25~26일 현장 방문 및 문서 검증 ▲8~29일 문서검증 ▲8월 2~3일 기관보고의 내용이 담겨 있다. 보

여기에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현장 방문과 문서검증, 기관보고 등 전체 일정 및 세부 계획을 담은 실시계획서를 상정, 의결했다.

다만, 증인 채택 문제가 합의되지

않음에 따라 8월 5·6·8일 실시키로

했던 청문회 등 일부 일정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추후 확정키로 했다.

실시계획서 체택으로 그동안 증인 문제로 고통을 겪던 국조특위가 재가동되게 됐으나, 여전히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이 커 국조가 원전히 정상화될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당초 실시계획서와 함께 기준에 여야간 합의된 증인 82명(일반증인 64명 + 기관증인 18명)에 대해서도 이날 의결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발을 감안, 강행 처리하지 않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조선대학교·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은 인간처세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 동강대학교

관상 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 여정이자 미래의 지도인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남관계의 결과물이다. 손자병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했다.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낫놓고 그자도 모른다"면 성공은 기약하기 어렵다.

동강대의 귀족사주란? 우주의 천사를 풀어인 귀족사주! 사주풀이가 너무나도 잘 맞아서 귀신이 꼭을 하고 도망갔다 하여 이를 부처진 귀족사주를 동강대학교에서 공개합니다.

2011년 애반인 신입생 모집(15주간)

| 대학교별 | 교과과정 | 기간 및 요일 | 강의시간 | 수강료 | 기관전화 |
|-------|--------|-----------------|--------|----------|------------|
| 조선대학교 | 관상학 초급 | 8월 30일부터 매주 화요일 | 19~22시 | 150,000원 | 230-7700-2 |
| 평생교육원 | 관상학 고급 | 9월 2일부터 매주 금요일 | 19~22시 | 150,000원 | |
| 동강대학교 | 사주명리초급 | 9월 7일부터 매주 수요일 | 19~21시 | 120,000원 | 520-2516 |
| 평생교육원 | 사주명리고급 | 9월 9일부터 매주 목요일 | 19~21시 | 120,000원 | |

● 조선대 등록 - 8월 1일부터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등록
- http://www.chosun.ac.kr/lifelong
- 광주은행 004-107-000152(예금주 : 조선대 평생교육원)

● 동강대 등록 - 8월 1일부터 ~ 전화 등록 후 입금 또는 직접등록

장학특전 노령자, 장애자, 생활수급자, 복수과목 감면 신청 등

교육전담강사 소석 동양철학 연구원장 김경준

문의: 각 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0-3644-7232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연설·리더십·설득력 향상

최고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① 교육기간 : 2011년 9월 9일(금) ~ 2012년 6월 말일까지 : 1년과정

* 매주 금曜일 주 1회 19시 ~ 21시 교육

②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최고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교육기간 중 원우회 친목도모를 위한 포럼조직

③ 모집인원 : 50명 선착순

* 지원대상 : 각종선출마예상자, 전문직 및 직능별증시자, 남앞에서 두려움 없이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내성적인 성격), 기타 일반인, 직장인, 주부, 학생 등

④ 교육과정

대학 및 연수기법, 리디오/TV 스피치 요령, 각종행사 사회 진행요령 및 축사, 주례사 등 각종 선거 후보자 연설문 낭독 요령, 발성 수련 운동 및 어휘력 개발 연습,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대